

창요

월간건설신문

Email : khong3000@gmail.com Tel : 021-5579-6569
광고문의 : 0858-9060-0962, 0815-1066-5868

VOL. **26**
2019 / 02



재인도네시아 한국 건설협의회
THE ASSOCIATION OF KOREAN CONTRACTORS IN INDONESIA

올해 대선 앞둔 인도네시아, '경제 악재' 흔들



인도네시아의 2018년 국내 총생산(GDP) 성장률이 2014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조코 위도도(통칭 조코위)정권이 외국인 투자 감소와 지나친 재정 지출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외신에서는 오는 4월 치러질 대통령 선거에서도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최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경제적인 악재들이 4월 대선에서 조코위 정부의 큰 악재로 작용하면서 국정 운영과 선거에서도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내다봤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2017년 기준 경제규모 세계 16위의 국가로, G20에 가입되어 있는 동남아시아 최대 경제 대국이다. 게다가 조코위 대통령이 이끄는 이번 정부에서는 공무원의 상여금을 증액하고, 연금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는 등, 인도네시아 노동인구의 약 4%에 육박하는 450만명에게 총 35조 루피아(한화 약 2조8,210억원)을 지급했다. 늘어난 소득과 아시안개발과 국제통화기금(IMF) 세계

은행 총회 등 국제적인 대형 이벤트들은 국민들의 소비 지출을 늘리게 했고, 이는 견조한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밑바탕이 됐다. 조코위 대통령도 지난달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지만 인도네시아의 경제는 순조롭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5.3%로 설정했다. 그러나 재정적자와 줄어드는 외국인 투자가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과관빚 전망의 발목을 잡고 있다. 우선 오는 4월 공무원 급여가 5% 늘어난다. 현지에서는 이미 만성적 재정 부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소비 지출을 늘리기 위한 재정 지출 확대를 언제까지 지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게다가 외국인 투자는 지난해 조코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외국 자본 출자제한 완화와 투자 절차 간소화를 추진했고, 이를

통해 세계은행이 조사하는 투자환경 평가에서 2013년에 120위에 머물렀던 인도네시아는 4년만인 2017년에 72위까지 수직 상승했다. 그러나 최근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정책 대신 내수 중심의 정책이 강조되고, 올 4월 치러질 대선 등 불확실성이 높아진 인도네시아의 정치 상황 등으

로 인해 외국계 기업들이 투자를 보류하고 있다. 또한 외환시장에서 루피아화의 약세가 지속되고, 석유제품의 수입이 늘어나면서 무역수지도 악화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산유국이지만 소비가 늘면서 석유 제품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정부는 석유회사에 국산 바이오연료의 일정 비율 이상의 이용을 의무화하는 등 석유제품의 수입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시민단체 “대통령과 자카르타 주지사는 상수도사업 재공영화 협의에 참가해라”

인도네시아 시민단체 ‘물 민영화에 반대하는 자카르타 시민연합(KMMSAJ)’은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자카르타특별주 아니스 주지사에게 자카르타 상수도사업 재공영화에 대해 협의하는 회의에 참여하도록 요청했다. 이 회의는 2월 4일 자카르타 법률지원기관(LBH)에서 개최된다. 현지 언론 펠뽀 1월 28일자 보도에 따르면 LBH의 벨슨 변호사는 “2017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수도 사업을 다시 공영화 할 의사가 있는지, 대통령과 주지사들에게 질문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판결에 따르지 않으면 다시 법정 투쟁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했다. 자카르타 상수도 사업은 수하르트 정권 시대인 1997년에 민영화가 결정됐다. 자카르타



특별주 공영 수자원기업 PAM 자야(PAM Jaya)는 1998년, 프랑스계 PAM 리요네즈 자야(PT PAM Lyonnaise Jaya)와 싱가포르계 아에트라(Aetra) 민간 2개사에 업무를 위탁했다. KMMSAJ은 2013년, 상수도 사업에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 2017년 10월 대법원은 “수자원은 시민의 이익을 위해 공공 기관이 관리해야 한다”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상수도 사업 재공영화가 결정됐지만, PAM 자야는 2019년 이후에도 PAM 리요네즈 자야와 아에트라에게 자카르타 수도 사업을 계속 위탁을 방침을 나타냈다.

발릭빠반 해상 고속도로 이달 중 입찰 전망



인도네시아 국영 건설 와스끼따 까르야(PT Waskita Karya)의 자회사 와스끼따 톨

로드(PT Waskita Tollroad)에 따르면, 동부 깔리만판 주에 건설하는 발릭빠반 해상 고속도로(총 연장 7.6킬로미터)의 건설 업체 선정 입찰이 이달 중 실시될 전망이다. 낙찰자는 오는 6월경 발표될 예정이라고 비즈니스인도네시아가 보도했다. 와스끼따 톨로드의 관계자는 “필요한 입찰 서류를 공공사업국민주택부의 고속도로통

제청(BPJT)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회사가 60%를 출자하는 톨 톨루크 발릭빠반(PT Tol Teluk Balikpapan)이 개발 사업자로 입찰에 참여한다. 발릭빠반 해상 고속도로는 동부 깔리만판 발릭빠반시과 건너편 뿌나잠 빠스라 우따라군(Penajam Paser Utara, 이하 PPU)을 연결한다. 사업비는 16조 5,000억 루피아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BS 476 Fire Test “CLASS 0”

인도네시아 최초 획득...

TOILON
FOAM

건축 자재 (Building and Construction Materials)

■ Duct / Pipe / Roof Insulation(보온 단열재)

가방 제조업체 부자재 공급 및 가공 (Bag Materials)

자동차 내장재(전자선 가교 폼):Door Trim, Sun Visor, Headliner등
스포츠&레저(실내 및 야외매트, 구멍조끼, 수영보드, 헬멧 및 장갑, 신발 Insole)

두께 : 2mm ~ 50mm , Density : 25kg/m3 ~ 200kg/m3

본 사 : Jl. Raya Serang KM., 16, 8 Desa Telaga Cikupa, Tangerang 15710 Indonesia
 T E L : (021) 5940 4086, 5940 4087 FAX : (021) 5940 4084
 한국인 직통 : 0815 1902 0499(제환영부장) E-Mail : yjeh@toilon.co.id / yjeh@toilonindo.com Website : www. toilon.co.id

韓철도공단 JAKPRO, 경전철 2단계 사업 MOU 체결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경전철(LRT) 2단계 사업 참여 협력을 위해 자카르타특별주 주영 개발사 자카르타 프로퍼티인도(PT Jakarta Propertindo, JAK-PRO)와 24일 철도공단 본사에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는 지난해 11월 김상균 이사장이 인도네시아 방문 까르야(Budi Karya) 인니 국토부 장관에게 한-인니 철도 워킹그룹 구성을 제안했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실질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이번 양해각서가 체결됐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철도공단은 국내 및 인니 철도기관들과 철도 워킹그룹을 구성할 예정이다. 철도 건설·운영·기술·협력 등 4개 분과로 나뉜다.

철도건설 분과(철도공단-JAKPRO)의 MOU를 시작으로 각 분과별로 워킹그룹 구성이 완료되면 분과별 철도 이슈를 상호 공유하고, 기술전수·역량강화교육·업무노하우 전수 등을 통해 한·인

니 양국 간 철도분야 교류 활동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JAKPRO의 드위 와후다료또(Dwi Wahyu Daryoto) 사장과 관계자들은 이번 방한

기간 동안 고속철도 시승과 함께 구로 철도종합관제센터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날 공단 본사에서는 올해 상반기 자카르타 LRT 1단계(5.8km) 개통식에 대비해 공단의 철도개통 행사 노하우를 벤치마킹했다.

김상균 이사장은 “우리 공단은 정부의 신 남방정책을 적극 이행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등 잠재력이 높은 신흥국으로의 진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자카르타 1단계 사업에 이어 2단계 사업까지 반드시 수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니, 국가전략 31개 사업 완공 서두른다



인도네시아 국가 전략 프로젝트를 감독하는 국가우선개발 인프라준비위원회(KPPIP)는 올해 3분기(7~9월)에 국가 전략 프로젝트로 선정된 인프라 사업 31개 안건을 완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10월을 앞두고 인프라 사업 완공을 서두른다.

현지 언론 인베스트 데일리

21일자 보도에 따르면 KPPIP의 와후 실행 위원장은 “31개 안건의 총 사업비는 276조 4,000억 루피아에 달한다”라고 말하며 “중부 술라웨시의 모로왈리 공단(사업비 105조 루피아)과 동남 술라웨시의 꼬나웨 공단(67조 5,000억 루피아), 북부 말루꾸주 불리 체련소(19조 7,000억 루피아), 람뽕주의 땅가무스 공단(17조 5,000억 루피아), 서부 자바의 제2 찌깜빡 고속도로(16조 2,000억 루피아) 등의 건설 사업이 포함된다.

한편, 2016~2018년에 완공된 국가 전략 프로젝트는 223개 안건 중 62개 안건(320조 루피아)이었다.

[여론조사] 조코위, 우세 확인... 쁘라보워, 고학력층 부문 우세

1차 TV대선 직후 여론조사... 조코위, 뿌라보워보다 23%포인트 앞서

인도네시아 차기 대선을 2개월여 앞두고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조코 위도도(일명 조코위) 현 대통령이 우세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야권 대선후보인 뿌라보워 수비안토 그린드라당 총재가 전체 유권자 가운데 11.5%를 차지하는 고학력층 부문에서 우세를 보인 만큼 재선을 낙관하기는 일러 보인다고 8일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는 여론조사기관 LSI (Lingkaran Survei Indonesia)이 실시한 2019 대선 당선 가능성을 가늠하는 여론조사에서 조코위 대통령이 뿌라보워 후보를 크게 앞섰다.

LSI는 지난달 18일부터 여드레 동안 전국 유권자 1,2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조코위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인 마륵 아민 전 올라마협의회(MUI)의장은 54.8%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1차 TV 대선토론 직후 실시됐다.

뿌라보워 후보와 러닝메이트인 산디아가 우노 전 자카르타 부지사의 지지율은 이보다 23.8%포인트 낮은 31.0%에 그쳤다.

양자의 지지율 격차는 지난 1월 이뤄졌던 같은 여론조사와 비교할 때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전체 유권자 가운데 11.5%를 차지하는 대졸 이상 고학력층에서 뿌라보워 후보가 44.2%로 조코위 후보



37.7% 보다 우세를 보였다. 고학력층이 대선에서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대선을 앞둔 2개월 동안 얼마만큼 격차를 줄일 수 있을 지에 관심을 끌 것이라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다.

이번 조사는 △무슬림 △소수자 △중하층 소득계층 △여성 △밀레니얼 세대 △고학력층 등 6개 부문으로 나눠 계층별로 조사했다.

인도네시아 차기 대선은 올해 4월 17일 총선과 함께 치러지며, 약 1억8,700만 명의 유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현재까지의 판세는 조코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조코위 대통령은 친서민·개혁 정책을 내세워 돌풍을 일으켰던 2014년 대선 당시와 달리 독보적으로 앞서나가는 모습을 보이지는 못하고 있다.

무슬림 과격파의 음해를 막고 보수성향 유권자를 끌어안기 위해 영입한 조코위 대통령의 러닝메이트인 마륵 전 의장과 신선한 이미지의 비즈니스맨 출신인 뿌라보워의 러닝메이트 산디아가 전 자카르타 부지사가 남은 기간 얼마만큼의 역할을 할지가 승패를 가늠할 관건으로 부상하고 있다.

[데일리인도네시아]

F1 LOGIX
We are anywhere you are

www.f1-logix.com

인도네시아의 새벽을 여는 기업!

Leading Logistic Provider

- 4PL
- 항공, 해상운송
- 내륙운송
- 통관대행
- 물류 컨설팅
- 물류 OS
- W&D 사업

F1 LOGIX

Wisma Korindo 9th FL,
Jl. MT. Haryono Kav. 62
Jakarta, 12780, Indonesia

Telp. : +62-21-797-6237
Fax : +62-21-797-6015
E-mail : kor@f1-logix.com

석유화학산업 키우는 인도네시아... 기회의 땅 될까



석유화학업체들이 지난해 매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제품 수요마진 감소 등으로 희비가 엇갈리는 가운데, 인도네시아가 해외시장의 돌파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최근 코트라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고부가 석유화학 제품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국내 업체들의 사업 진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2017년 기준 에틸렌, 프로필렌 등 42종의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나 동시에 190억달러 규모의 석화제품을 수입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올레핀 플라스틱산업협회(INAplas)에 따르면, 연간 원료 수요량은 560만톤으로 이 중 55% 가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석유화학 제품 원료 수입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국가차원에서 석화산업 육성화 의지를 밝히고 있다. 과거 자국 천연자원 보호를 위해 방어적 입장을 취했던 것에서 해외 투자 자본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하는 추세라는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파푸아 지역에서 천연가스광구를 중심으로 대규모 석유화학단지를 조성하는 '빈푸니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인니 정부는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수마트라 지역에서 석탄가스화 발전소(IGCC) 건설이 추진되고 있고 각 지역에서 메탄올, 올레핀 생산시설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코트라 측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산업분야와 달리 석화부분의 해외 자본 유치를 위해 세금 공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준비하고 있다"며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LG상사, 롯데케미칼에 혜택 부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력 수요를 뒷받침할 발전 플랜트 건설 계획도 이어지고 있다"며 "발주처 지정 자재 외 일부 현지 조달이 어려운 자재 생산기업에 진출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글로벌 자동차업체, 인구 4위 인도네시아서 대격돌

현대자동차(현대차) 등 글로벌 자동차업체들이 인구 세계 4위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베트남 경제매체 베트남비즈는 인도네시아가 태국과 함께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지역내 주요 자동차 생산기지 중 하나가 됐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도요타를 비롯해 미쓰비시, 스즈키 등 주요 일본 자동차업체들이 인도네시아에서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자동차업체들이 앞다퉈 인도네시아로 몰리는 이유는 인도네시아가 인구 대국이라는 장점 외에 새 자동차 수요가 연간 7%에 달하는 거대 시장으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는 최근 전기자동차(전기차) 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전기차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인니 정부는 2025년까지 연간 판매되는 새 차



가운데 20%(약 40만대)를 전기차로 의무화할 방침이다.

현대차는 인도네시아에 10억 달러(약 1조 1190억 원)를 투자해 전기차를 포함해 해마다 차량 25만대를 생산할 계획이며, 생산 차량의 절반 이상이 주변국으로 수출될 예정이다. 특히 인도네시아와 호주가 '인도네시아-호주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IA-CEPA)'을 곧 체결할 예정이어서 호주가 유망 수출시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외에도 독일 업체 폭스바겐과 프랑스 르노도 인도네시아 자동차시장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광물자원부, 2024년까지 470만 가구에 도시가스 공급 목표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는 2024년까지 470만호 가정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목표라고 밝혔다.

현지 언론 자카르타 포스트 18일자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경상 수지 적자는 국내 총생산(GDP)의 3%에 달한다. 특히 도시가스 정비가 외화 유출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분석돼 정부는 에너지 분야의 지출 삭감을 목표로 내걸

었다. 이그나시우스 조난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은 "이에 따라 액화석유가스(LPG)의 소비를 절감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LPG의 연간 소비량은 650만~670만톤에 달하고 있지만 국내 생산량은 250만톤에 불과해 나머지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난 장관은 "국내 풍부한 천연가스를 사용한다면 LPG



수입량을 줄일 수 있고 이는 외화 절약까지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프로판가스 요금은 1입방미

터 당 4,250루피아~6,000루피아 선으로 일반 가정이 보통 사용하는 3킬로미터의 가스통에서 도시가스로 전환하면 월 최대 2만 루피아가 절약된다.

조난 장관은 "올해 7만 8,000호에 배관망을 우선 정비, 2024년까지 총 470만호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게 목표이다"라고 덧붙였다.

PT. KUMGANG INTERNATIONAL

35년 경험과 기술의 기업!

최소한 이정도는 되어야죠 ㅎㅎ
35년 알루미늄 샷시문 생산 외길을 걸어온
장인정신으로
인도네시아 문(門)시장을 활짝 연다!



●알루미늄 접이식 출렁도어 ●알루미늄 시스템 창호 ●전동/방화 셔터 시스템 ●방화문 & 패션도어 ●디지털 도어록

Showroom : JL. Panglima Polim Raya No. 60A Jakarta Selatan
Tel : 021 2930 5937 Fax : 021 2930 5938

Factory : JL. Pengampelan Rt. 06 Rw. 03 Kp. Nambo Kaserangan Cirus Serang, Banten 42182
www.kgfiredoor.com E-MAIL : kumgang.int@gmail.com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불신 씻기 위해 해외 철도 진출에 온힘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이 해외 철도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6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따르면 철도시설공단은 현재 인도네시아를 포함해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이집트 등 5개 나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철도시설공단은 인도네시아에 총 길이 135km의 일반철도 건설 및 운영사업을 제안해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김상균 이사장은 이 사업과 관련해 “인도네시아 토종업체와 경쟁 중인데 우리가 건설, 기술, 운영 노하우까지 다 이전하겠다고 해 현지 당국이 매력적으로 느끼고 있다”며 사업의 성사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김 이사장은 3월에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경전철(LRT)

사업자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어 한국 기업의 수주 지원을 위해 빈틈없는 노력을 하고 있다.

자카르타 경전철사업은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서울교통공사, GS건설, LS산전, 현대로템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수주에 나서고 있는 사업이다.

자카르타 경전철사업은 모두 3단계로 구성돼 있는데 현재 2단계사업 참여 협력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2~3단계사업은 총 72억 달러 규모로 추정되며 외부에서 금융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해졌다.

철도시설공단은 중국에서 진행하는 철도 감리사업에도 집중하고 있다.

철도시설공단은 31억 원 규모의 정만선(허난성~후베이



▲지난 해 김상균 이사장(왼쪽 두번째)이 인도네시아 정부 관계자들과 LRT 2단계 사업 관련 회의를 하고 있다.(철도공단 제공=연합뉴스)

성) 충칭 구간 감리 용역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철도시설공단은 중국에서 2005년 중국 수닝과 충칭을 잇는 수투선 감리 수주에 성공한 이후 16건을 수주했다. 감리사업 수주로만 누적 매출 591억 원을 달성했고

중국 발주처로부터 모두 13번에 걸쳐 우수 감리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김 이사장은 1월22일 세종시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에서 감리사업을 많이 진행해 관계가 좋아졌다”며 “앞으로 중국과 파트너로 컨소시엄

을 구성해 다른 해외사업에 참여하는 방법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인도, 방글라데시, 이집트 철도시장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현재 철도시설공단은 169억 원 규모의 방글라데시 악하우라~락삼 간 복선화 감리 용역사업, 40억 원 규모의 이집트 나가하마다~룩소르 사이 신호 현대화사업, 98억 규모의 인도 렉나우시 메트로 총괄관리(PM) 용역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 이사장이 해외시장 진출에 총력을 기울이는 배경에는 지난해 있었던 KTX 사고로 실추된 이미지를 개선하고 정부의 신남방정책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김 이사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해외에서 우리가 철도 선진국이라고 큰소리쳤는데 2018년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다 “며” 이를 발판 삼아 안전하면서도 빠르고 쾌적한 철도 만들어 수출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한국철도시설공단 내부 출신 1호 이사장으로 1979년 철도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거의 40년을 철도 관련 업무를 맡아 일해 온 철도 전문가다.

철도청 시설본부장과 건설본부장을 거쳐 건설교통부 철도국장을 역임했고 2008년에는 한국철도시설공단 부이사장을 맡기도 했다. 2018년 2월 제6대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비즈니스포스트)

韓철도시설공단, “인도네시아 사업 수주 기대”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은 인도네시아 마카사르~파레파레(Makassar~Parepare) 철도건설사업을 수주하는 데 있어 굉장히 유리해진 상황이라며 해외수주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김상균 위원장은 22일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단과의 기자간담회에서 “공단과 경쟁하는 인도네시아 현지업체보다

입찰가격이 높지만 우리가 철도 건설·운영 기술이전, 수출시장 동반 진출 등을 약속해 인도네시아에서 매력적으로 느낀다”고 말했다.

마카사르~파레파레 철도건설사업은 800억원대 규모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철도공단이 처음 손을 잡았다. 여기에 계통건설과 현지 국영 건설 아디 까르야(PT Adhi Karya) 등이 참여해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해 8월 공단이 GS건설, 서울교통공사, LS산전, 현대로템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수주에 나선 자카르타 경전철(LRT) 사업도 낙관했다.

그는 “공단이 1단계 경전철 사업을 수주했고 발주처 사장도 이번 주에 만날 계획이다. 3월에 최종 결정이 나고 상반기 중 계약 공고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철도 개선에 대해서는 “고속철도를 건설하려면 현재 노선은 곡선 반경이 작아 쓸 수가 없다. 현재 노선을 조금 개선하고 새 노선을 까는 투트랙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북미회담 결과에 따라 제재가 해제되고 철도 조사도 세부적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이사장은 단순히 금액만으로 경쟁할 경우 철도시장에서 중국의 존재를 ‘재앙 수

준’이라고 평가하면서 “우리가 중국에 감리를 많이 해줘서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어 파트너로 컨소시엄을 꾸리는 작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LITE
SINAR ABADI

가성비 최적의 제품을 공급합니다

공장 유니폼
단체복
골프복
기타

JWjindohwang@gmail.com
0812 1324 1251
021 5518 037



PT. KORI ELESKA UTAMA

완벽한 시공을 원하십니까?



각종 철제 가공 및 제작
각종 샌드위치 판넬 수입 및 시공

승객용, 화물용 Lift

- 1, 공장 Lift
- 2, 식당 Lift
- 3, 주차장 Lift
- 4, 주택 Lift
- 5, 상가 Lift



절곡능력MAX6TX3.2m

절단능력MAX8TX3.2m



절단MAX20T길이330mm



6T절단X200mm

LEE JAI BUM
Hp. 0812 819 9842
Email: kori.jblee@gmail.com

BAEK JUN HYUN
Hp. 0821 2238 2014
Email: baek064646@gmail.com, bkbajautama@gmail.com

인도네시아 정부, 올해부터 철강 수입 규제 강화키로



인도네시아 정부가 올해부터 철강 수입 규제를 강화할 방침을 나타내 귀추가 주목된다. 인도네시아는 인프라 구축 사업과 제조 산업 육성으로 철강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지만, 공급이 수요를 맞추지 못해 관련 업계의 철강 수입도 더불어 증가하고 있다. 철강의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 철강업계 보호를 위해 올해부터 철강 수입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의 철강 수입은 2017년과 2018년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6%와 34% 증가해 2018년 1월부터 11월까지 수입실적은 126억 4,448만 달러를 기록했다.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은 지난 10일 무역부 장관령 '2018년 제22호'를 통해 사후 통관 검열 제도인 포스트보더 시스템을 반영해 개정했던 법령을 최근 발표한 제110호를 통해 개정하면서 철강 수입 통관 방식이 2019년 1월 20일부로 기존의 사전 검열 체계로 회귀했음을 강조했다. 앞서 루끼따 장관은 "2018년 국가 철강 수요는 143만 톤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 수입이 급속도로 증가했다"며 "철강 수입에 한해 기존의 통관 절차로 회귀가 필요하다"고 촉구한 바 있다. 실미 까림 인도네시아 철강 협회장은 "현재 인도네시아로의 철강 및 철강제품이 너

무 많이 수입되고 있어 철강 업계가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로 철강 및 철강제품을 주로 수출하는 국가로는 수입액 규모 순서대로 중국, 일본, 한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싱가포르, 베트남, 러시아, 인도, 대만, 말레이시아 등이 있다. 수입이 많이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산업 발전 및 인프라 구축의 이유뿐만 아니라 현지 생산 제품보다도 단가가 더 낮은 제품들을 외국 업체들이 수출해 인도네시아 수입업자를 기만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까림 협회장에 따르면 지난해 7월의 철강 수입은 9억 9,62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6.55% 증가한 수치다. 누적 기준으로는 56억 7,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6.3% 증가했다. 철강협회 측은 이로 인해 인도네시아 철강 업계가 위기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내수 제품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반덤핑 및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 품목에는 철강 제품이 많이 포함돼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재조사를 통한 종료 기한 연장이 검토 또는 시행되고 있다. 비합금강 평판강관은 세이프가드를 2017년 10월 3일부터 2019년 10월 2일까지 연장했으며, 석도강관의 경우 반덤핑 적용기간이 2019년 2월 14일까지지만 인도네시아 반덤핑위원회는 기한을 2024년까지 늘리는 것을 검토 중이다. 합금강은 세이프가드를 2018년 1월 21일부터 2021년 1월 20일까지로 연장했다. 인도네시아는 2018년 2월 1일부로 국내로 유입되는 상당 품목에 대해 통관 후 검열 시스템이 가동되기 시작했으나 2018년 한 해 동안 85억 7,000만 달러의 대규모 무역 적자를 기록하며 수입이 정책적으로 억제되고 수출 절차를 간소화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품목들은 수입 증가율이 높아 국내 산업에 위협이 가해진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대해 규제를 강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며, 주요 품목 중 하나가

철강 및 철강제품이다. 코트라에 따르면 "철강 수입 규제를 위해 발표된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령 2018년 제110호 발효를 통해 수입쿼터로서의 효력을 발휘하는 사전수입승인이 철강제품에 대해 이전보다 더욱 더 철저히 시행될 것"이라며 "해당 법령의 발효로 수입쿼터로서의 효력이 발휘하는 사전수입승인이 철강제품에 대해 이전보다 더욱 더 철저히 시행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현지 철강 업계의 제소를 적극 반영해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의 조치를 통해 수입을 본격적으로 억제해 나갈 가능성이 있다"며 "인도네시아 정부 당국은 현지 철강 업계의 자생력을 기르기 위해 철강 제품 제조업 육성에 좀 더 관심을 보일 것으로 보임에 따라 관련 제품을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은 무역부를 통해 해당 법령 및 시장 분위기를 수시로 파악해야 한다"고 권장했다.

다만, 통관 후 인증 관련 서류를 검토하는 단계가 있는 경우라도 사전에 해당 서류들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통관 후 48시간 내에 자진 신고를 할 수 없어 쉽 처리되기 때문에 사전 관리 체계를 규정한 이번 개정 법령이 수입 억제에 효력이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투자조정청, 인허가 OSS 시스템 업무처리 속도 높일 것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의 토마스 램봉 청장은 7일, 인허가 신청 및 발급 절차를 온라인으로 일원화하는 OSS(Online Single Submission) 시스템을 3월부터 본격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OSS 시스템은 지난해 7월 경제조정성부에서 처음으로 운용을 개시, 1월 2일에 BKPM

에 운용 권한을 넘겼지만 아직 허가 발급 속도가 예상보다 늦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지 언론 콤포스 7일자 보도에 따르면 토마스 청장은 "(OSS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우선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하며 "3월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연계를 강

화하고 대형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허가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건축허가(IMB) 취득 절차도 OSS로 진행하도록 개정할 방침으로 현재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다. IMB의 취득 절차가 OSS로 단순화되면 세계은행이 매년 발표하는 비즈니스 환경 지수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BKPM은 올해 목표 투자실현액(석유 가스, 금융 등 제외)을 전년 대비 9.8% 증가한 792조 루피아로 설정했다. 토마스 청장은 "지난해는 목표에 달성하는데 실패했지만, 올해는 투자가 확대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도서출판/인쇄 광 개 토

실크로드 인도네시아는 디자인 연구소로서
그간 코파의 힘, 미디어 코리아, 건설신문 창조를 발행 해 왔고
기업 CI, 홍보용 카달로그, 북 디자인외 많은 프로젝트를 수행 해 왔습니다.
이제 직접 인쇄공정을 수행 해 낼 수 있는 설비와 시스템을 갖추고
고객 여러분의 만족에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늦각이 출발이지만 항상 곁에서 함께 하길 바랍니다.

2019년 새해에도
변함없이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제품들을 제작합니다
카달로그 / 도서출판 / 브로슈어 /스티커 /라벨 / 카렌다 / 행택 / 기타

0858-9060-0962
khong3000@gmail.com





김재훈의 세무상식

재난 성금에 대한 손금 산입(법인세 비용 인정)여부



□ 국가가 정한 인도네시아 내에서 행해지는 연구 개발을 위한 기부금

□ 국가가 정한 사회 기반 시설 구축 비용

□ 국가가 정한 교육 시설을 위한 기부금

□ 국가가 정한 체육 기금을 위한 기부금

상기 기부금과 관련한 세부 시행령으로 2010년 정부령 93호 (PP 93 / 2010)에 규정되어 있는데 재난과 관련한 기부금을 살펴보면,

국가가 정한 국가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기부금이란 : 납세자는 국가 재해 피해자에게 기부하는 것과 관련하여 재난 관리 기관을 통해 직접 제출하거나 재난 구호 기금을 모금하기 위해 허가 된 기관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국가 재해” 가 의미하는 것은 자연적 요인 및 / 또는 비 자연적 요인 및 인명 피해를 초래하는 인적 요인으로 인해 생겨난 사람들의 삶과 생계를 위협하고 중단시키는 일련의 사건 또는 일련의 사건으로 환경 피해, 재산 손실, 심리적 영향 등이 포함된다.

“재난 관리 기관” 의 의미는 재난 관리와 관련하여 2007년 법률 번호 24 (UU No24/2007) 에 언급 된 국가 재해 관련 기부금을 수용, 배포 및 / 또는 관리하도록 정부가 결정한 기관이다.

기부금의 손금산입 조건 :

-납세자는 직전년도 법인세를 근거로 순이익이 있어야 하고 기부금을 손금 처리하여도 결손이 되지 않아야 한다.

(예를 들어 2017년도에 PT. A 기업의 순이익은 10억 루피아였고, 2018년에 정부가 지정한 기관에 기부금을 40,000,000 루피아하였고 2018년 순이익이 30,000,000 루피아였다면 10,000,000 루피아에 대해서는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

-유효한 증빙 자료

손금산입 한도 :



김재훈 대표

세무조정후 순이익에서 최대 5%

사례 예 :

2017년 납세자의 순이익은 60억 루피아일 경우 2018년 기부금 손금 최대 금액은 5% 또는 3억 루피아인데, 2018년 납세자는 5억 루피아를 정부 지정 기관에 기부했을 경우 차액 2억 루피아는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 <끝>

문의 : kimjhoon@bngconsulting.co.kr

약력

PT. BNG Consulting 대표
재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 사무국 사무차장
중소기업 진흥공단 인니세무 자문
Toray Group (TPJ) 세무자문 위원
인도네시아 Kuasa Hukum Pengadilan Pajak (Tax Lawyer)

저서

알기쉬운 인도네시아 세법 (2015. 중소기업진흥공단)
인도네시아 진출 우리기업 투자환경 개선보고서 (공저, 2016. Kotra, Kocham)
알기쉬운 인도네시아 세법
TEL : 021 522 2739
e-mail : kimjhoon@bngconsulting.co.kr

로복 지진팔루 쓰나미, 빈덴주 순다 협 쓰나미 등 자연 재해로 인해 재난 성금을 기부했을 때 법인세로 비용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법인세 비용 인정을 받지 못한다. 상기 기부금에 대해서는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하여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

다. 인도네시아 소득세법 (UU No.36 / 2008) 제 6 조 (1)항 i, j, k, l 및 m에서 기부금 손금 산입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 국가가 정한 국가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기부금

신한, 인도네시아서 1,000억대 캐피탈 인수 추진

신한금융그룹이 1,000억 원대 규모의 인도네시아 리테일 금융(소비자금융) 전문 캐피탈사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은 인도네시아 소비자금융사 인수를 놓고 막판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인수금액은 1,000억 원 규모. 신한금융의 한 관계자는 “할부금융

에 시너지를 낼 현지 캐피탈사 (M&A를 위해) 들여다보는 중” 이라며 “가격 이슈가 최종 변수” 라며 조심스럽게 전했다.

신한금융이 인도네시아 캐피탈사 인수에 나선 것은 현지 할부금융 시장의 매년 폭발적인 성장세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KB금융과 1위 경쟁을 넘

어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조용병 회장이 적극적으로 인수합병(M&A)에 뛰어들었다는 분석이다.

인도네시아는 자동차 신차 시장이 연간 100만대, 오토바이 시장이 600만대 규모로 대부분이 할부금융을 끼고 구입한다. 특히 오토바이 등록 대수는 1억 1,500만대로 전체 인구의 절반에 달한다. 신한금융



은 이미 현지에 나가 있는 신한카드의 신한인도파이낸스 (PT Shinhan Indo Finance) 와의 시너지를 통해 할부 시장 진출을 공격적으로 펼친다는 계획이다.

현지 금융권 관계자는 “자동

차와 오토바이는 담보가 있고 차주도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어서 연체 관리만 잘하면 수익성이 보장된다” 고 말했다. 신한금융은 지난해 신한카드를 통해 인도네시아에서 중고 차량 대출을 중심으로 다루는 BFI 금융(PT BFI Finance Indonesia)의 지분매각(42.8%) 예비입찰에 참여했다가 고배를 마신 바 있다. 이번에 현지 캐피탈사를 인수하면 아픈 기억을 만회하게 되는 셈이다.

가설 자재의 모든것!

PT. RIZKY KIM INDONESIA는 한국가설협회의 **안전 인증서**와 **부재별 시험성적서**를 모두 갖춘 Hory korea의 우수한 품질의 System Support와 다양한 제품을 취급합니다

PT. RIZKY KIM INDONESIA

시스템 써포트 (SYSTEM SUP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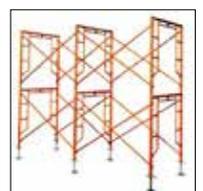
비계파이프 (BIGYEI PIPE)

Steel Frames Scaffolding



중고 가설 자재 매입

시스템 써포트
비계파이프
유로폼
Steel Frames Scaffolding



Office : Jln. Imam Bonjol Ruko Pinangsia Blok I No. 1/2 Karawaci Tangerang,
TEL : (021) 5577 8383 HP : 0813 1900 2020(김성하) 0812 8005 0077(김명하)
E-mail : sungha1891@hanmail.net

'영업이익 1조' 달성 GS건설, 이젠 신용등급 상향 가시권

총부채도 1년새 2조원 줄여 작년 'A-' 긍정적' 전망 받아 올해 6년만에 상승 가능성 높아

영업이익 '1조클럽'을 달성한 GS건설이 그동안 약점으로 지적돼 왔던 재무구조 개선에 나서면서 외국인의 러브콜을 받고 있다.

최근 1년 새 부채를 2조원가량 줄이면서 신용등급이 오를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올해도 강점인 주택 사업을 강화하면서 실적 증가와 재무구조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이란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다.

6일 금융감독원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GS건설은 지난해 1조649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창사 이래 최대 실적으로 전년 대비 이익이 3배 이상 급증했으며 건설사 중 1위에 올랐다. GS건설은 선호도가 높

은 아파트 브랜드 '자이'를 앞세운 주택 사업이 호조를 보였고 저가 수주로 고생하던 국외 사업장이 마무리되면서 실적이 크게 개선된 것이다. 특히 다른 건설사들의 실적 악화 요인이었던 국외 플랜트 사업에서 '이변'을 일으켰다. GS건설은 작년에 사우디아라비아 라비 프로젝트를 비롯해 해외 플랜트 사업에서 1800억원 규모의 공사비 환급(클레임)에 성공했다.

국외 사업보다는 리스크가 낮은 국내 플랜트 사업 확대도 GS건설에 호재다. GS건설은 작년 12월 LG화학과 전남 여수 석유화학단지에서 석유화학 공장을 짓는 4000억원 규모 계약을 맺었다. LG화학은 여수 석유화학단지에 2조

6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 GS그룹도 대규모 투자를 예고한 상태다.

정하늘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플랜트와 주택 사업으로 꾸준한 실적 증가가 예상된다"며 "특히 주택 사업의 경우 서울과 수도권 비중이 높아 리스크가 낮다"고 전했다.

증권가에선 GS건설이 작년 5884억원의 역대 최대 순이익을 거둔 것에도 주목하고 있다. 직전 2개년(2016~2017년) 적자에서 현금 흐름이 크게 개선된 것이다.

올해 추정 순이익은 5445억원으로 2년 연속 5000억원대 순이익이 예상돼 부채(빚)가 빠르게 감소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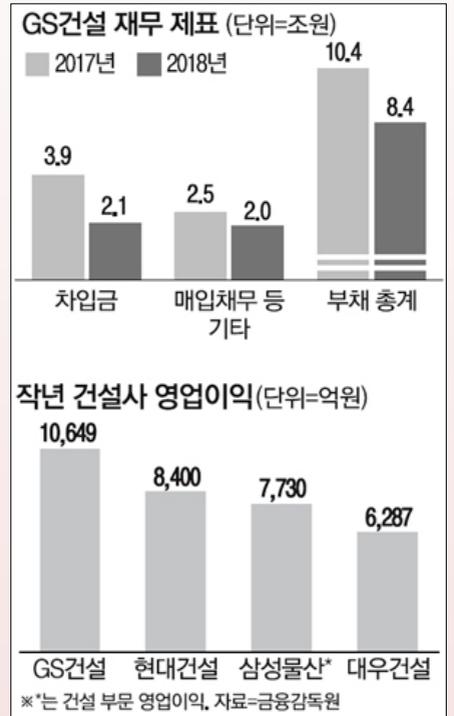
작년 말 기준 GS건설의 차입금은 2조1000억원으로 1년 새 1조8000억원가량 급감했다. 이에 따라 총부채는 같은 기간 10조4000억원에서 8조4000억원으로 2조원 줄어들었다. 작년 9월 말 GS건설의

부채비율은 249.3%로 다른 건설사 대비 높은 수준인데 이 비율도 낮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자금 조달 비용을 좌우하는 신용등급 상향 조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GS건설 신용등급은 'A-'로 전망(아우룩)은 '긍정적'이다.

작년 이 업체의 아웃룩이 기존 '안정적'에서 한 단계 상향 조정된 만큼 신용등급 자체도 6년 만에 오를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신용평가사 관계자는 "현재 현금 흐름으로 보면 신용등급이 2~3단계 올라야 하지만 여전히 국외 플랜트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다"며 "2013년 'AA'에서 내려온 이후 올해 처음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같은 기대감에 외국인은 이 종목을 올해 들어 지난 1일까지 258억원어치 순매수했다. 이 기간 주가는 7% 올랐다.



에너지광물자원부

석유,가스 5개 광구 입찰 가까운 시일 내에 실시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는 석유·가스 5개 광구의 입찰을 가까운 시일 내에 실시

너지광물자원부의 알찬드라 차관은 "5개 광구는 현재 조업중인 서부 리아우주 웨스트 캄빠르 광구와 같은 주의 슬랏 뽀장 광구, 탐사광구는 웨스트 가날 광구와 마까사르 스트레이트 광구, 웨스트 까이마나 광구이다" 라고 언급했다.

에너지광물자원부는 지난해 석유·가스 34개 광구 입찰을 3회에 걸쳐 실시했다. 이 가운데 사업자가 확정된 광구는 9개 뿐이다.

한다고 밝혔다. 현지 언론 인베스톨 데일리 1월 31일자 보도에 따르면 에

유습 깔라 부통령,

"루피아 약세로 항공 운임 인상 불가피"



지난 14일 현지 언론 펨뽀 등에 따르면, 유습 깔라 부통령은 항공 운임 인상을 용인하는 생각을 드러냈다.

유습 깔라 인도네시아 부통령은 "항공 운임 상승은 미국 달러에 대한 루피아 약세가 진행한 데 따른 것으로, 운임이 인상되지 않으면 많은 항

공사가 파산할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그는 "항공사는 비행기와 항공 연료를 달러로 구입하고 있지만 항공 티켓은 루피아로 판매하고 있다"며, "루피아 약세가 진행되면서 경영을 압박한다.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항공사협회(INACA)는 지난 13일, 이용객의 불만 사항에 따라 국내선의 운임을 20~60% 인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ACE PT. ACE Engineering & Construction
HVAC ENERGY BUSINESS DIVISION

ACE No. 1

토목 / 건축 / 공장 건설사업으로 성장한 **PT.ACE E&C**가
신 성장 동력으로 차세대 개념의 **HVAC** 및 **Solar Plant** 사업을 시작합니다.

HVAC Solutions

VRF



빌딩/학교/기숙사/APT

Turbo Chiller



공장/플랜트/발전소

* HVAC : Heating, Ventilation, Air conditioning

Solar Plant Solutions



ReneSola



ESS

* PT. ACE E&C는 ReneSola의 인도네시아 Partner 회사임

GENERAL CONSTRUCTION CIVIL - ARCHITECTURE - ELECTRICAL - MECHANICAL - HVAC - NEW & RENEWABLE ENERGY

제안, 설계, 시공 및 유지보수에 차별화된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연락처 : Mr. STEVE YOUN 0812 - 9730 - 5553 / 이메일 : steveyoun.indo@gmail.com
홈페이지 : www.ptaceenc.com

GRAND WUJAYA CENTER BLOK E-11(A-9) Jl. Darmawangsa Raya
- Kebayoran Baru Jakarta Selatan 12160 - Indonesia,
Office : + 62 - 21-2708-1859 / 720-4320

깔리만탄 도로 건설, '세계 최악의 자연환경 위협' 평가

인도네시아 깔리만탄섬에서 진행되는 도로 건설 계획이 '세계 최악의 자연환경 위협'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현지 언론 자카르타 포스트 4일자 보도에 따르면 호주 제임

킬로미터)가 2010년에 착공, 올해 5월에 완공 예정이다. 한편, 깔리만탄섬은 세계 동식물의 6%가 서식하고 있다.



스콧 대학과 인도네시아 국립 대학, 동부 깔리만탄의 물라와르만 대학교와 함께 실시한 조사에서 깔리만탄 고속도로 부설 공사로 인해 심각한 열대우림 파괴가 발생했고, 코끼리와 오랑우탄 등 동물들의 이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나타났다.

제임스콧 대학의 윌리엄 연구소장은 "밀렵꾼과 불법 자원 채굴 업체의 증가로 삼림 파괴가 더 진행될 것"이라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시피 환경·임업 장관은 "고속도로는 동물 서식지 끝쪽에 건설되는 등 환경 보호 관련해 충분한 배려를 기울이고 있다"라고 반박하며 "인도네시아 발전을 위해 도로 인프라 건설은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2017년 깔리만탄섬에 총 1,900킬로미터 길이의 도로 건설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또 동부 깔리만탄 발릭빠판~사마리다 고속도로(99

아니스 주지사 "자카르타 상수도 재공영화 추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특별주 아니스 주지사는 11일 자카르타의 상수도 사업을 단계적으로 다시 공영화 하겠다는 방침을 나타냈다. 자카르타 상수도 사업은 수하르토 정권 시대인 1997년에 민영화로 결정됐다. 자카르타

특별주 공영 수자원기업 PAM 자야(PAM Jaya)는 1998년, 프랑수아 PAM 리오네즈 자야(PT PAM Lyonnaise Jaya)와 싱가포르계 아에트라(Aetra) 민간 2개사에 업무를 위탁했다. 현지 언론 자카르타 포스트

12일자 보도에 따르면 아니스 주지사는 "1998년에 44.5%에 달했던 자카르타 상수도 보급률이 현재 59.4%에 그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상수도 사업 발전을 위해 민간기업에 맡겼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상수도 재공영화를 위해 자카르타특별주 상수도 사업 검토부는 소송을 통한 민간기업 2개사와 계약 해지와 2개사의 주식 인수, 새로운 협정 체결 등의 여러가지 대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계약 해지는 막대한 배상액이 발생하는 등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해 계약이 만료되는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업무를 이전하기로 결정했다.

자카르타의 상수도 사업을 둘러싸고 '물 민영화에 반대하는 자카르타 시민연합(KMMSAJ)'은 2013년에 집단소송을 제기, 2017년 10월 대법원은 "수자원은 시민의 이익을 위해 공공 기관이 관리해야 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PAM 리오네즈 자야와 아에트라가 자카르타 상수도 사업을 계속 맡고 있었다.

"인니 금융서비스산업, 경제성장 주도하기 아직 역부족"



하기 위해서 현재보다 23% 대출 확대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금융감독청(OJK)은 2019년 대출 금액의 성장은 13%로 예상하고 있어, 6%의 경제성장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불충분하다.

국가개발계획청의 레오나르드 차관(경제 담당)은 "금융서비스산업은 투자 재원을 공급하는 산업이다. 은행과 비은행 등 금융기관이 그 역할을 확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차관은 또 "많은 인도네시아인이 일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것도 대출성장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이다"라고 덧붙였다.

세계은행(WB)이 2017년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국내 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금융서비스산업의 비중은 인도네시아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국가 중 라오스 다음으로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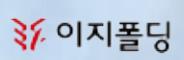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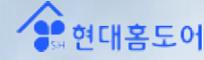


WELCOME-VISA
싱가폴 당일 비자 전문




대표 **김정미**(Jay Kim)
H.P : +65 9337 5852
카톡: **welcomevisa**
E-mail: visa7568@gmail.com



PT. KAISAR SINAR HISASH
www.siansash.co.id / www.pintulipat.id

우리는 **窓門**을 만듭니다!

시안의 **窓門**전문가들이 직접 설계, 제작하고 책임시공을 약속합니다.









HEAD OFFICE / FACTORY JAKARTA
Jl. Pahlawan KM 1, Karang Asem Timur Citeureup – Bogor 16810 Indonesia
Telp. : 021-8794-3838 Fax.: 021-8794-3839
Email : info@siansash.co.id

공지사항

월간 건설신문 창조는 재인도네시아 건설관련 기업의 좋은 친구가 될 것입니다. 관련하여 건설관련 한인업체의 디렉토리를 창조에 게재 할 계획입니다. 원하시는 업체는 아래 관련 정보를 주시면 매월 업데이트 시켜 상호 정보공유와 기업 홍보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 아래 기초 정보를 이메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 회사명
 - 대표자 성명 : 한글, 영문
 - 개인 핸드폰번호
 - 회사 전화번호
 - 회사주소
 - 사용 가능한 이메일주소
 - 홈페이지 주소
- 위 정보를 보내 주시면 매월 발행되는 건설신문을 무상으로 배송해 드립니다.
- 저희 지면에 무상 게재되는 디렉토리는 지면 관계상 **회사명, 전화번호(1개), 주요업종, 지역, 이메일** 만 게재해 드립니다. 만약 더 많은 정보를 게재하시길 원하시면 직접 상담후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실 주소 : khong3000@gmail.com
문의전화 : 021-5579-6569, 0858 9060 0962

대한민국 청년을 위한 K - MOVE 프로그램 소개

1. K—MOVE?

열정과 잠재력을 가진 대한민국 청년들이 세계로 나아가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여 양질의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지원 프로그램입니다.

2. KOTRA자카르타 K—MOVE 센터?

KOTRA의 해외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우리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소개하고, 우리 구인기업에게는 우수한 인재 채용을 돕기위해 KOTRA 자카르타 무역관에 K—MOVE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3. 주요 지원 프로그램?

- 해외취업장려금
 - 지원대상자: 만34세이하해외취업성공자

2) 취업인정기준: 취업비자, 단순 노무직 제외, 연봉 1,500만원 이상, 근로계약기간 1년이상

3) 지원금액 :최대 800만원 (1차300만원, 2차200만원, 3차300만원)

* 인정요건 등 세부내용은 월드잡 회원가입 후 공고내용확인

(<https://www.worldjob.or.kr/ovsea/sbsd.do?menuId=1000000041>)

(2) 우리기업 채용 지원

- 자카르타 경제신문, 인도웹 등구인 광고비 지원(최대 90%)
- 자카르타 K—MOVE 센터등록 인재풀 소개
- 기업소개 자료 제작 및 기업 홍보 지원
- 채용박람회참가비 지원 등

구인·구직, KOTRA (K—MOVE 센터)가 도와드립니다.



지원 및 혜택

구인광고 지원 :
신문-온라인 광고비
최대 90% 혜택

구직자 취업 후
정착지원금(800만원)지급
(만 34세 이하, 첫 취업 시 1년간 나누어 지급)

자세한 내용 문의 : KOTRA (K—MOVE 센터) 이은정 실장
(08111 350 444, 카톡 ID: ejleedoowang19, kotrajakarta2018@gmail.com)

TOILON

ROOF

SINCE 2003
단열재 지붕 벽체 전문생산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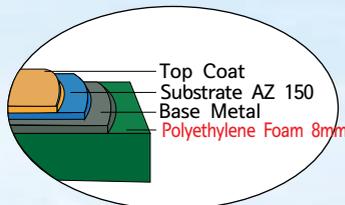
PT. TOILON INSU PANEL

Jl. Raya PLP Curug – Tangerang
Telp. (021) 5579 7181 Fax. (021) 5576 9926
Mobile. 0811 843 211
Web. www.toilon-insupanel.com

쾌적한 근로환경은 친환경 단열이 우선!

토일론 단열 지붕의 장점

- Anti Panas 단열효과
- Anti Bising 흡음효과
- Anti Api 난연효과
- Anti Air / Water Proof 방수효과
- Anti Fungal, Kimia 항곰팡이, 항산성 및 알칼리
- Simple and Quick Construction 빠르고 간편한 시공
- Long Duration 오랜 수명



PROFILE

전제품 8mm Polyethylene Foam 열접착

- 35mm Trimdek
930mm x 35mm
- 25mm Trimdek
1040mm x 25mm
- 35mm Spandek
920mm x 35mm
- Boltless-Seaming Type 110mm (Roll on Site)
420mm x 110mm
- Boltless-Seaming Type 55mm
736mm x 55mm
- Genteng Metal (기 와)
82mm x 35mm x 20mm

저희 회사 전 제품의 철판은 호주가 본사인 PT. NS BLUE SCOPE INDONESIA로부터 공급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제품은 8mm Polyethylene Foam을 열접착 하고 있습니다. Aluminium Foil부착제품도 생산합니다.

공사건설현장



Parkland Indonesia

Posco Indonesia

K-WALLPAPER GALLERY

Importer of Premium Quality Wallpaper

WHY CHOOSE US?

- Top Quality Material
- Best Price
- Made in Korea



OUR SERVICES:



Wallpaper



Parquet



Vinyl Flooring

Looking for home wallpaper, parquet and vinyl flooring inspiration? Let us help you to find it!



☎ 021-84310753 📞 08118530037
✉ k.wallpapergallery@gmail.com @kwallpapergallery
Jl. Alternatif Cibubur Cileungsi No. 39B, Jatikarya

건설, 토목, 플랜트

- POSCO E&C INDONESIA**
자카르타 021 7278-4686
- PT. DASOM KONSTRUKSI & TEKNIK**
자카르타 021 3004-8047
- PT. SEOHEE INDONESIA**
자카르타 021 2991-6001
- PT. KORINDO HEAVY INDUSTRY**
땅그랑 021 595-0088
- 대림산업**
자카르타 021 5296-1060
- 롯데건설**
자카르타 021 522-3252
- PT. POWERTECH**
Engineering & Construction
자카르타 021 520-2025
- 쌍용건설**
자카르타 021 5795-0377
- 두산중공업**
자카르타 021 2995-0102
- 현대건설**
Engineering&Construction
자카르타 021 571-3700
- 현대 중공업**
자카르타 021 2945-5201
- 대우건설**
자카르타 021 250-6555
- GS건설**
자카르타 021 5785-3182
- SK 건설**
자카르타 021 521-1883
- SK TECH**
자카르타 021 520-2025
- 삼환기업**
자카르타 021 520-7439
- 삼성물산**
자카르타 021 527-8182
- 현대 엔지니어링**
자카르타 021 5269-4208
- 계룡건설**
자카르타 0813 9809-7914
- PT. ELJINDO**
토목, 일반건설, 공장중축
자카르타 021 7883-3357
- PT. P&I INDONESIA**
Heavy Machinery, Supplier, Construc-
tion & Port Crane
땅그랑 021 5579-3855
- PT. TUNAS DUNIA**
자카르타 021 2936-3664
- PT. ACE ENGINEERING & CONSTRUCTION**
Civil-Architecture-Electrical-Mechanical
자카르타 021 720-4272
- PT. SEPULUH SUMBER ANUGERAH**
EPC GENERAL CONTRACTOR
자카르타 021 5140-2833
- PT. HAN JIN KONSTRUKSI INDONESIA**
GENERAL ENGINEERING & CONSTRUCTION
CONTRACTOR
세랑 반튼 0254 402323
- SHINHWHA TECHNO PLANT**
Electrical, Mechanical, Construction,
Fire Fighting Total Solution
Factory Control Consultant
찌까랑 021 8984 1283
- PT. DAEAH E&C INDONESIA**
건축, 토목, 플랜트
반튼 021-5574-1492
- PT. POWERTECH ENG & CONST**
[Co-work] 두성건설(주)
021 520-2025
- PT. HANS JAYA UTAMA**
건축, 토목, 플랜트
자카르타 021 7919-2055

공단 및 공사

한국 수자원 개발공사
자카르타 021 515-0754

ENGINEERING

- PT. BANGUN JAYA UTAMA**
Engineering & Construction
021 652-0449
- 도화 엔지니어링**
자카르타 021 5140-0996
- 다 슐**
자카르타 021 2940-3042
- PT. BANGUN JAYA UTAMA**
Engineering & Construction
자카르타 021 652-0449

인도네시아 건설 및 관련업종 디렉토리

인도네시아 한인 건설 및 관련 업종의 정보 디렉토리입니다. 게재를 원하는 업체는 업체의 기초정보를 본지이메일로 보내 주시면 다음호 부터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혹 업체정보의 변경 또는 누락이 있으면 즉시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khong3000@gmail.com, 0858 9060 0962

- PT. ALAM DUNIA ENG & CONST**
땅그랑 021 5579-8505
- PRATAMA JAYA**
Engineering
땅그랑 021 5576-8070
- PT. P-CRANETECH ENG & SERVICES**
자카르타 021 5435-0412
- 대영 엔지니어링 (DY)**
자카르타 021 5794-5766
- PT. DAEKYEONG E&C**
Engineering & Construction
세랑, 반튼 0254 848-7678
- PT. CNEX ENGINEERING CONSTRUCTION**
Supply and Instalation,
Fire Alarm and Fire Fighting System
자카르타 021 2920-4684
- PT. JINWOO ENGINEERING**
땅그랑 021 597-7810
- PT. GLOBAL SUNG JUO**
General Construction & Engineering
땅그랑 021 5577-2538

전기

- LS산전**
전력 수배전 해외사업부
자카르타 0212933-7614
- PT. JEONGSUK TECH ABADI**
Electrical & Supplier
땅그랑 021 5566-2989
- PT. FIRDAUS INDONESIA**
Mechanical, Electrical, General
Supplier & Contractor
땅그랑 021 5940-2939
- PT. BNC MACHINERY INDONESIA**
Electric Rebar Bending, Cutting Ma-
chines & Auto.
자카르타 021 5435-3589
- PT. YOOHAN ELECTRIC & C**
Agen Cable Listrik (Eterna, Voksel &
JJ-Lapp Cable), Elektrik Equipment
땅그랑 021 5574-6345
- PT. YUCOM JAYA MANDIRI**
General Contractor, Mechanical
Electric, General Traiding
땅그랑 021 5949-2764
- PT. UTAMA JAYA TEKNIK**
Electrical, Mechanical, Civil, Design &
Engineering,
땅그랑 021 5577-4507

건축자재

- PT. RIZKY KIM INDONESIA**
건축 가설재
땅그랑 021 5577-8383
- PT. MIDAS INDONESIA**
U-PVC 지붕자재
땅그랑 021 5428-7777
- PT. ASIA CHEMICAL INDUSTRY**
산업용 특수페인트
땅그랑 021 5579-0456
- PT. SIAN U-PVC**
U-PVC System Window, ABC Door
보고르 021 8794-3838
- PT. EROM ABADI INDO**
건축자재, 소모품 유통
브카시 021 8991-2061
- PT. CTS GLOBAL INDO**
친환경 방음, 차음 펜스 생산
찌까랑 021 8991-2061/63
- KORINA TOOL**
Power tools, Scurity Tool, Mold
Material s, Abrasive
땅그랑 021 5940-0081
- PT. MITRA METAL**
Metal Spray, Ceramic Coating,
Tungsten Carbide, Febrication
땅그랑 021 596-0522
- PT. KYUNG HEUNG INDONESIA**
Sandwich Panel TM Roof & Wall, Steel
Structure & Contractor
자카르타 021 530-7244
- PT. ANEKA PANEL INDONESIA**
Manufacture of Sandwich Panel
자카르타 021 797-8989

- PT. SUNWOO HOME INDONESIA**
Manufacturing Stainless Steel Pipes
땅그랑 021 5940-0288
- PT. TOILON INDONESIA**
Duct Insulation, Pipe Insulation, Roof
Insulation, Bag Component, Playing
Mat, Automative Part
땅그랑 021 5940-4086
- PT. TOILON INSU PANEL**
Insulated Panel
땅그랑 021 5579-7181
- PT. FAJAR EKA INDOTAMA**
Steel Structure Fabricating, Piping (FAB
& Instal), Mechanical Construction,
땅그랑 021 5444-393
- HYUNDAI ALUMINIUM CO.,LTD**
자카르타 0812-8706-7437

- PT. PUTRA HANKUK**
Steel Con` s & Civil Engineering
자카르타 021 525-5784
- PT. DANAKORINDO JAYA**
Steel
땅그랑 021 5510-588
- PT. MIRAN METAL INDONESIA**
Produksi & Contruksi Plat Besi, Stain-
less, Galvanis, V-Cutting, Tekuk
땅그랑 021 596-9775
- PT. KUMGANG HYUNDAI**
Curtain wall & Aluminum window/ Fire
door & shutter.
자카르타 021 2930 5937
- HANSHIN**
컴프레샤
땅그랑 021 5949-4000
- PT. DONG SUNG TOOLS**
공구 머신툴
찌까랑 021 8990-8327
- PT. SMART TECHTEX**
Door, Windows, Plafon
자카르타 021 522-7983

- 에스와이패널**
EPS 판넬
땅그랑 021 2932-5742
- PT. WARNATAMA CEMERLANG**
에폭시
땅그랑 021 590-1888
- PT. PRIME CON INDONESIA**
바닥코팅
땅그랑 021 5316-3787
- PT. SEJIN LESTARI FURNITURE**
Door, Furniture
땅그랑 021 591-8496

- PT. NEWSUN**
안전화
땅그랑 021 2901-7310
- PT. DOLSEOK INDONESIA**
지붕재, 방수시트
땅그랑 021 2259-7930
- PT. HYDRO JOTALINDO PERKASA**
Master Dealer Lampung Sand Blasting
& Painting Applicator
람뽕 0721 780 151, 0721 781 457
- PT. KCC INDONESIA**
페인트
자카르타 021 3002-7184

설비

- PT. TOPINDO TEKNIK ABADI**
General Contractor
자카르타 021 7918-1917
- PT. HYUNDAI ELEVATOR INDONESIA**
Maintenance & Repair, Spare Parts
자카르타 021 631-8444
- PT. GEOSUNG SYSTEM INDONESIA**
Multizone Airconditioner Clean room
plane, HVAC Thermo-Hygrostat,
Maintenance
질레곤 025 434-0319
- KUMSUNG INDONESIA**
Agen Samho Boiler
자카르타 031 664-1641
- PT. MIURA INDONESIA**
Best Partner for Energy, Water, and
Environment
자카르타 021 2902-2342
- PT. KOREA FIBLON**
Lighting Innovation
자카르타 021 4280-1604

- WOORIZEN INDONESIA**
The Energy Saving Solution
자카르타 021 386-2228
- PT. GEUM CHEON INDO**
판금가공
땅그랑 021 5940-2454
- PT. JM EKA PERSADA**
대차, 바퀴, 팔렛, 트레이
땅그랑 021558-6446
- PT. TOP ABADI**
팔렛 작업대, 대차
찌까랑 021 8990-2241
- PT. HYUNDAI FACADE ALUMINIUM INDONESIA**
Ruko Spark Block C No. 26 Gading
Serpoing Tangerang
땅그랑 021 2901-5282

인테리어

- INNOMATE**
Interior, Office Design, Exhibition
자카르타 021 7919-2006
- PT. DECOREE INTERNATIONAL**
Interior, Architecture, Creative Design
자카르타 021 8066-7038
- PT. DUNIA INDAH MAKMUR**
K-Wallpaper & Wood Vinyl Flooring
찌부부르 021 8431-0753
- PT. EOK ECO INDONESIA**
인도어, 아웃도어, 인테리어
자카르타 021 7919-2426
- PT. INDKOR**
Interior & Total Solution
찌부부르 021 8430-7773
- PT. KES INDONESIA**
Interior & Exhibition
땅그랑 021 558-2105
- LIVING A&I**
Architecure & Interior
자카르타 021 7278-0704
- YOU & YOU INTERIOR**
021 719-1285

포위딩

- F1 LOGIX**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ing
자카르타 021 797 6237
- PT. DUNIA TRANSPORTASI LOGISTIK**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ing
자카르타 021 4287-0098
- (주)소리향공**
PT. BINTANG JAYA TRANS
자카르타 0851 0046 3552
- PT. WIRAWAN KAWAN SEJAHTERA (WIKASA)**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er
자카르타 021 8379-1935

- PT. CAHAYA INDAH LOGISTIC**
As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er
자카르타 021 2751-3783
- PT. HANINDO EXPRESS UTAMA**
건설장비 운송
자카르타 021 252-5123
- KAS EXPRESS**
자카르타 021 2938-2773
- KPL**
자카르타 021 422-9282
- PT. EAST GLOBAL LOGIX**
자카르타 021 8063-0760
- PT. KCTC INTERNATIONAL LOGIX**
자카르타 021 797-5959

컴퓨터, CC TV, 보안

- PT. GLOBAL SUMBER JAYA**
CCTV/PABX/Access Control/
Computer LAN/Sound System
자카르타 021 7251-606
- PT. D&B NETWORK**
자카르타 021 2938-5398
- PT. TELE GLOBE GLOBAL**
Elec. Mechanical Eng & Construction,
internet service Provider,
브카시 021 8240-0880
- 컴퓨터 원**
CCTV, Computer
땅그랑 021 5579-6399
- HANSTAR**
인터넷 CC TV
자카르타 021 2906-7229

중장비

- DAEWON CRANE GLOBAL**
땅그랑 0812-1200-3344
- PT. HD FORKLIFT INDONESIA**
자카르타 021 2961-6497
- 반도 크레인**
크레인 호이스트
자카르타 021 3002-7804

컨설팅

- PT. GAON INDO JAYA**
키타스, 법인설립
땅그랑 021 5579 4626
- PT. BNG CONSULTING**
세무, 회계
자카르타 021 522-2739~40
- PT. GLOBAL CENTER**
키타스, 법인설립
땅그랑 021 5577-6454
- PT. JOO CONSULTANT**
세무, 회계
땅그랑 021 558-1616
- WOORI CONSULTING**
키타스, 법인설립
자카르타 021 7918-4264
- BNC CONSULTING**
법인설립 및 키타스 진행
021 2912-6495/6
- PERMATA FORTUNE INDONESIA**
법인설립 및 키타스 진행
021 799-6182

월간 건설신문 창조 광고를 제안합니다.

월간건설신문 창조는 건설관련업체의 영업과 마케팅에 필요한 광고를 받고 있습니다

1, 개요

주요대상 : 건설관련 기업 및 자재, 장비, 기타 관련업체
광고매체 : 건설신문 창조(월간)
특 징 : 창조는 건설협회 전 회원사에 다이렉트 메일로 매월 발송되며 관련 기업 약 300여 업체 대표님과 그 직원 모두에게 매체 도달률 100%, 가독률 100%의 전문 소식지입니다.
또한 인도네시아내 각 기관 및 기업 약 1,000여 업체에 무료 배송하고 있습니다.

2, 광고 상품안내

연간(12회) 계약 혜택 : 광고 디자인 무료, 기획기사 1회 취재 및 게재

3, 연락처 및 문의처

021-5579-7281 (mr. kang) **0858-9060-0962**
e-mail : **khong3000@gmail.com**

국내 발전사들 해외석탄발전소 투자 ... 비윤리 vs 신성장동력?

우리나라 발전사들은 심각한 국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 문제 등으로 국내 환경규제가 강화되자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투자에 나서고 있다. 여기에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 등 금융기관도 동남아시아 석탄화력발전 프로젝트에 거액을 투자하는 것으로 드러나 국제사회와 시민단체 등의 비판을 받고 있다. 환경단체는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석탄화력발전소 건설 투자가 현지인의 건강문제를 초래해 비윤리적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발전사들은 국내 전력산업 성장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사업 확장 추진동력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유한열 남동발전 사장은 올해 환경규제로 인해 국내 발전소 경영여건은 그렇게 녹록치 않다고 판단했다. 유 사장은 “연말에는 삼천포 1·2호기 조기폐쇄가 예정돼 있다. 미세먼지에 대한 정부 규제강화로 석탄발전소에 대한 일시적 가동중단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유연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증가 등은 남동발전 수익성 확보에 장애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해외 투자 등 신성장동력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남동발전은 지난해 7월 베트남 하노이에 발전사업 진출을 위한 한국남동발전 베트남 사무소를 열고 업무를 시작했다. 남동발전 관계자는 “베트남 사무소는 신성장동력으로 각광받는 베트남 전력시

장 개척을 위해 마련됐다. 베트남 사업진출 뿐 아니라 동남아 전력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전초기지로서 활용할 계획이며 베트남 전력공급 안정화와 해외발전사업 개발을 위한 다양한 노력도 함께 기울이겠

다” 고 말했다. 이처럼 남동발전은 미국, 불가리아, 네팔, 파키스탄, 터키, 인도네시아, 칠레에 이어 베트남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함으로써 해외사업개발을 적극 확장해 나가고 있다.

중부발전도 해외 대규모 석탄화력 민자발전사업(IPP)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한국중부발전 남연우 차장은 “인도네시아 자바 짜레본 660메가와트(MW) 석탄화력발전소와 제파라 1320MW 석탄화력발전소, 태국 방콕 인근 산업단지 110MW의 천연가스화력발전소, 인도네시아 북수마트라에 45MW 수력발전소 등을 운영하고 있다” 고 말했다. 현재 건설하고 있는 사업도 소개했다. 그는 “미국 네바다 보더 시티에서 275MW 태양광발전소를 짓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짜레본에 1000MW 화력발전소를 건설 중” 이라고 말했다.

환경단체는 해외 석탄화력발전소가 한국보다 더 허술한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적용해 현지인들에게 피해를 입힌다며 투자를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 발전소의 경우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배출 허용 기준이 한국과 비교해 최대 28배까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정부가 국내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석탄발전소의 대기오염 배출 허용 기준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강화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그린피스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이 금융 지원했거나 지원을 예정 중인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내 14개 석탄발전소의 대기오염물질로 연간 약 3000여 명의 조기사망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석탄발전소의 평균 운전수명이 30년인 것을 감안할 때 조기사망자는 총 9만 여 명에 달하며 앞으로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그 피해는 최대 13만명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14개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수은과 이산화황,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은 연간 31만2000톤에 이른다. 국내 635개 사업장 대기 오염물질 연간 배출량이 36만 톤인 것과 비교했을 때 해외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의 심각성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김두관, 김성환, 조배숙, 이원욱, 장병완 의원실 등이 공적금융기관 세곳의 해외 석탄발전소 금융 지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인도네시아 짜레본 1·2·3기 운영권을 수주한 중부발전 측은 국감 중 “짜레본 3기 투자는 중단했고 재생가능에너지 사업 투자로 전환할 것” 이라 발언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3.1운동 100주년 평화기원대회

- 일시 : 3월 3일(일), 오전 5시 30분
- 장소 : 수디르만 거리
- 구성 : 3.1운동 재현 시가행진
- 대상 : 한인단체·교민 & 인도네시아인 누구나

< 특별강연 >

- 일시 : 3월 3일(일), 오전 10시
- 장소 : 롯데쇼핑에비뉴, 아이스룸 4층
- 강연 :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 「개성공단 사람들」 저자)

< 문화행사 >

- 일시 : 3월 3일(일), 오후 2시
- 장소 : 롯데쇼핑에비뉴, 아이스룸 4층
- 구성 : 한국어 말하기 및 그림그리기 대회, 각종 문화공연 및 사진전
- 주관/주최 : 주인도네시아대사관, 재인도네시아한인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남아남부협의회, 한국문화원, 한국자유총연맹 인도네시아지부
- 후원 : 봉계협의회, 신발협의회, 한인상공회의소, 월드옥타 자카르타지회, 재인도네시아 대한체육회, 한인문화예술총연합회

※ 당일 현장에서 티셔츠와 모자, 간식이 제공됩니다.